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 부당 대우

- 차별, 성희롱, 폭력에 관한

비교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김 규 리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 부당 대우

- 차별, 성희롱, 폭력에 관한

비교 연구

지도교수 백 도 명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김 규 리

김규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원장 조 성 일 (인)

부위원장 윤 충 식 (인)

위원 백 도 명 (인)

요약 (국문 초록)

연구 목적

근로 환경 부당 대우는 근로자 삶의 질 저하와 사회 갈등의 주 원인으로 분명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외국의 자료와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유럽에서 근로 환경 부당 대우를 차별, 성희롱, 폭력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연관된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한국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2011년 3차(n=35,902), 2014년 4차(n=36,614), 유럽의 2010년 5차(n=35,187), 2015년 6차 근로환경조사(n=35,368)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환경 부당 대우에 해당되는 문항을 차별, 성희롱, 폭력으로 구분하고 성, 소득, 학력, 직업, 고용 형태, 교대 근무, 주당 근무 시간을 조사하였다. 각 조사 별로 세 가지 부당 대우의 경험율, 변수별 분포를 확인하였고 유럽 국가는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간적 변화를 한국과 비교하였다. 또한 4차 한국, 6차 유럽 자료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관된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차별은 5차 유럽 2,334명(6.7%), 6차 유럽 2,534명(7.2%), 3차 한국 4,519명(12.3%), 4차 한국 4,718명(13.1%)으로 유럽보다 한국에서

높았으며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의 비차비도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한국 OR 1.37, 95% CI 1.26-1.50, 유럽 OR 1.29, 95% CI 1.16-1.43, 교대근무 한국 OR 1.54, 95% CI 1.40-1.70, 유럽 OR 1.30, 95% CI 1.17-1.44). 성희롱과 폭력은 모두 유럽에서 더 높았으나 여성 판매-서비스직의 성희롱 위험은 한국이 유럽보다 높았고(한국 여성 판매-서비스직 OR 2.43, 95% CI 1.51-3.91 유럽 OR 2.27, 95% CI 1.69-3.05),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의 폭력의 비차비가 한국에서 더 높았다(비정규직 한국 OR 1.11, 95% CI 0.99-1.24, 유럽 OR 0.97, 95% CI 0.89-1.05, 교대근무 한국 OR 2.21, 95% CI 1.98-2.47, 유럽 OR 1.81, 95% CI 1.68-1.94).

결론

본 연구에서 한국과 유럽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별 문제의 심각성과 성희롱, 폭력의 취약 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더 다양한 조사와 취약 집단 모니터링 등 관련된 근로 환경 개선 활동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근로환경 부당 대우, 차별, 성희롱, 폭력, 한국, 유럽, 근로 환경 조사

학번 : 2014-23354

List of Tables and Figures

Table 1. Description of each survey and selection of subject.....	5
Table 2. Workplace mistreatment of each survey questionnaire.....	7
Table 3.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12
Table 4.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14
Table 5.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of sex, age.....	16
Table 6.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of sex, age, nationality, religion, rac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18
Table 7. Change of discrimination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20
Table 8.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scrimination.....	22
Table 9. Distribution of sexual harassment.....	24
Table 10. Distribution of sexual harassment (female).....	26
Table 11. Change of sexual harassment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28
Table 12.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xual harassment.....	30

Table 13.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xual harassment (female).....	32
Table 14. Distribution of violence.....	34
Table 15. Change of violence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36
Table 16.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violence.....	38
Table 17. Percentage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of 6th EWCS by country and 4th KWCS.....	41
Figure 1, Bar graph of change of discrimination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20
Figure 2, Bar graph of change of sexual harassment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28
Figure 3, Bar graph of change of violence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36
Figure 4. Bar graph of sum of workplac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of European country in 2010(5th EWCS) and Korea in 2011(3rd KWCS).....	42
Figure 5.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	49
Figure 6.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49

Figure 7.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violence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49

목차

서론.....	1
연구 방법.....	4
1. 연구 대상.....	4
1) 근로 환경 조사.....	4
2) 연구 대상.....	5
2. 자료 분석.....	6
1) 부당대우 항목의 선정.....	6
2) 관련 변수의 선정.....	8
3) 통계 분석 방법.....	8
연구 결과.....	10
1. 대상자의 특성.....	10
2. 차별.....	13
1) 차별의 분포.....	13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차별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19
3) 한국과 유럽에서 차별과 연관된 요인.....	21
3. 성희롱.....	23
1) 성희롱의 분포.....	23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성희롱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27
3) 한국과 유럽에서 성희롱과 연관된 요인.....	29
4. 폭력.....	33
1) 폭력의 분포.....	33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폭력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35

3) 한국과 유럽에서 폭력과 연관된 요인.....	37
고찰.....	39
참고문헌.....	52
Abstract.....	55

서론

최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 및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이 기울고 있다. 근로 환경이란 작업 환경과 동의어로,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심리사회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말한다[1]. 나쁜 근로 환경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를 넘어 건강 손실과 노동 시장의 인적 자원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

이에 근로 환경에서 받게 되는 부당 대우를 최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주제로 국내외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차별, 성희롱, 폭력, 왕따 등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3-7].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우울증,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8]. 더욱이 차별은 근로 인구 노령화와 관련한 연령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업체 등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별, 여성/남성의 차별 등의 다양한 범주로 나타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최근 여성의 권위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직장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7],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갖춰지지 않고 불이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묵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 내 폭력 문제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업무상 사망 원인의 17%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었고[9, 10],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참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등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들 부당 대우는 모두 개인의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4], 이는 직장 분열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1].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은 물론 코티졸 증가 및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질병이 발생 가능하다[12].

그 동안 근로 환경 부당 대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당 대우와 관련한 건강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건강 문제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사고(손상)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두 부당 대우가 있을 때 건강 문제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였다[2, 13-15].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당 대우 중 한가지 항목만을 조사하였고, 특정 직종 중심이거나 한 시점에서의 단면 연구만을 분석하여 포괄적 시야에서 전체 사회를 평가하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한 유럽과 한국 자료를 비교하기는 했으나 여러 항목을 하나의 부당 대우 항목으로 묶어서 평가하였고, 한국이 유럽보다 부당 대우의 비율이 낮다고는 하였으나 어떤 부분에서 그 차이가 기인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럽에서 차별, 성희롱, 폭력의 분포를 각각 분석하고 이의 시간적 변화 흐름과 각각의 부당 대우에 더 크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추세를 한국과 비교하

면 우리 사회의 실태를 더 포괄적 시야에서 조명 가능하다.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고 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국가 통계 자료인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분석을 하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 상황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짚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근로 환경 조사

근로환경조사는 유럽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직종, 위험요인 노출, 고용 업무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차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5년 간격으로 시행되어 최근 2015년 6차 조사까지의 결과를 UK data service 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도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2014년 4차 조사까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주제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해왔다. 이들 자료로부터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 정보 파악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3차, 4차, 유럽의 5차, 6차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한국 근로환경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의 대한민국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가 대상이며 목표 응답자는 5만 명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층화하여 표본 조사구 5,000개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고 조사구 안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였다. 가구 안에서 최종 응답자를 결정하여 조사자가 가구 방문을 통한 인터뷰로 실시되었고, 최종 완료된 표본 수는 3차 한국에서 50,032명, 4차 한국에서 50,037명이었다.

유럽 근로환경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의 각 조사 대상 국가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목표 응답자는 각 국가 당 1,000명이다. 다만, 표본 크기를 증대 요청한 일부 국가와 영국, 독일, 터키 등은 1,200명에서 3,300명까지를 목표로

하였다. 각 국가별로 지역(NUTS2) 및 도시화 정도(DEGURBA3)에 따라 층화된 표본에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5차 조사에서는 100개에서 750개, 6차 조사에서는 50개에서 825개의 조사구(Primary Sampling Units, PSUs)를 추출하고 조사구 당 최대 2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또는 방문 인터뷰하였다. 최종 완료된 표본 수는 5차 유럽 조사가 43,816명, 6차 유럽 조사가 43,850명이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한국의 2011년 3차 조사, 2014년 4차 조사, 유럽의 2010년 5차 조사, 2015년 6차 조사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각 조사 별로 가장 최근 발표된 두 자료를 가지고 현황과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0년 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모집된 표본의 수가 2010년 2차 조사 10,019명, 2011년 3차 조사 50,032명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유럽의 2010년 5차 조사의 표본수 43,816명에 2011년 한국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전체 근로환경조사의 표본 중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2011년 3차 조사에서 35,902명, 2014년 4차 조사에서 36,614명, 유럽의 2010년 5차 조사에서 35,187명, 2015년 6차 조사에서 35,368명을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Description of each survey and selection of subject

Survey (Year)	3 rd KWCS (2011)	4 th KWCS (2014)	5 th EWCS (2010)	6 th EWCS (2015)
Target country	Korea	Korea	34 Europe countries	35 Europe countries
Total sample	50,032	50,037	43,816	43,850
Waged worker	35,902	36,614	35,187	35,368

2. 자료 분석

1) 부당 대우 항목의 선정

근로환경에서의 부당 대우를 차별, 성희롱, 폭력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사 설문지에서 근로환경 부당 대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룬 문항들을 선별하였는데 한국의 2011년 3차 조사에서는 총 11개 문항, 2014년 4차 조사에서는 총 16개 문항, 유럽의 2010년 5차 조사에서는 총 13개 문항, 2015년 6차 조사에서는 총 14개 문항을 찾을 수 있었다 (Table 2). 이들을 차별, 성희롱, 폭력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한가지라도 당한 경험이 '있다'로 답한 경우에 부당 대우가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Table 2. Workplace mistreatment of each survey questionnaire

	3 rd KWCS(2011)		4 th KWCS(2014)		5 th EWCS(2010)		6 th EWCS(2015)	
Discrimination	지난 12개월 동안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연령	지난 12개월 동안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연령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been subjected at work to _____ discrimination	Age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been subjected at work to _____ discrimination	Age
		학벌		학벌		Race		Race
		출신지역		출신지역		Nationality		Nationality
		성		성		Sex		Sex
		고용형태		고용형태		Religion		Religion
				인종		Disability		Disability
				국적		Sexual orientation		Sexual orientation
				종교				
	장애							
		동성애						
Sexual harassment	지난 1개월 동안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지난 1개월 동안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Over the last month,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unwanted sexual attention	Over the last month,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unwanted sexual attention
	지난 12개월간 업무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희롱	지난 12개월간 업무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희롱	Over the past 12 months,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sexual harassment	Over the past 12 months,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sexual harassment
Violence	지난 1개월 동안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언어 폭력	지난 1개월 동안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언어 폭력	Over the last month,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verbal abuse	Over the last month,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verbal abuse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threats and humiliating behaviour		threats
	지난 12개월간 업무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폭력	지난 12개월간 업무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폭력	Over the past 12 months,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physical violence	Over the past 12 months, during the course of your work have you been subjected to	physical violence
		왕따/괴롭힘		왕따/괴롭힘		bullying /harassment		bullying /harassment

2) 관련 변수의 선정

각 조사 별로 성별, 소득, 학력, 직업, 고용 형태, 교대 근무, 주당 근무 시간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소득은 4개 군으로 나누었는데, 한국은 월 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0만원 초과로 구분하였고, 유럽은 월 소득 300유로 이하, 301~900유로, 901~1800유로, 1800유로 초과로 구분하여 최저, 중저, 중상, 최상 (Lowest, Low-middle, High-middle, Highest)으로 명명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Middle school or below, High school, College or above) 의 3개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ISCO 직업 분류에 따라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미숙련직, 농림어업직, 군인 (Professional, Manager, Official worker, Sales and services, Skilled worker and technicians, Semi-skilled worker, Unskilled worke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Armed forces worker) 의 9개로 구분하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Regular)과 비정규직 (Temporary or part-time)으로 구분하였고 교대 근무는 유/무로, 주당 근무시간은 39시간 이하, 40~59시간, 60시간 이상의 3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럽 근로환경조사에 있어서는 대상 국가들을 유럽연합 가입 시기별로 초기 가입국(1995년도 이전 가입)과 후기 가입국(2000년대 이후 가입), 미가입국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한국과 비교하는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각 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조사 별로 교차분석을

통하여 차별, 성희롱, 폭력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각 부당 대우 항목이 한국과 유럽에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와 각 집단에서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의 3차 조사에서 4차 조사로, 유럽의 5차 조사에서 6차 조사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여 비교하였다.

유럽 근로환경조사 대상국가들을 유럽연합 가입 시기별로 나눈 후 차별, 성희롱, 폭력의 분포를 한국과 비교하였고 교차분석에서 적합도의 검증은 Pearson's chi-square test 로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이어 어느 요인이 각 부당 대우에 더 크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 자료인 4차 한국, 6차 유럽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한국과 유럽에서 관련성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est 로 각 변수 별 비차비(Crude odds ratio)와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est 로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비차비(Adjusted odds ratio)를 제시하고 각각의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가중치를 두어 분석시에도 각 부당 대우가 변수 별로 보이는 경향은 원자료 분석과 일치하였고, 본 연구 결과에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sion 23.0 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각 조사들의 표본의 분포를 제시하였다(Table 3).

3차 한국 대상자는 총 35,902명, 4차 한국 대상자는 총 36,614명으로 3차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9.3%/40.7% 였던 것에서 4차 조사에서는 51.4%/48.6% 로 성비가 비슷해졌다. 소득 수준은 최저층은 늘어나고 최상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 4차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직업군에서는 3차에서 4차로 오며 전문직은 크게 줄어든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 모두 증가하였다. 근무시간에서는 주 60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은 줄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늘었다.

5차 유럽 대상자는 총 35,187명, 6차 유럽 대상자는 35,368명으로 5차와 6차 모두 성비 구성은 비슷하였으며 여성이 더 많았다. 5차와 6차 자료에서 소득 수준의 결측치가 각각 10,244개, 7,186개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 자료와 반대로 최저층은 줄어든 반면 최상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차와 6차 모두 학력에서는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군에서는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이 함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은 감소하였고 교대근무자는 증가하였다.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주 60시간 이상과 주 40시간 미만이 모두 줄었다.

한국과 유럽을 비교하여 보면 고용 형태와 교대 근무, 근무시간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유럽은 줄어들었고, 교대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자는 한국이 유럽의 절반 이

하였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이 유럽이 한국의 약 3배이고 반대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1/4 수준으로 한국의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N	%	N	%	N	%	N	%
Sex								
Female	14616	40.7	17813	48.6	17854	50.7	18340	51.9
Male	21286	59.3	18801	51.4	17333	49.3	17028	48.1
Income								
Lowest	4065	11.6	5780	16.1	4231	17	3432	12.2
Low-middle	13114	37.3	13720	38.3	8230	33	9920	35.2
High-middle	10039	28.5	9770	27.3	7609	30.5	7723	27.4
Highest	7956	22.6	6543	18.3	4873	19.5	7107	25.2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3894	10.8	4390	12.1	8286	23.6	5675	16.1
High school	13155	36.6	13315	36.7	14337	40.9	14894	42.3
College or above	18853	52.5	18575	51.2	12469	35.5	14683	41.7
Occupation								
Professional	6756	18.8	3078	8.4	5440	15.5	6764	19.2
Manager	778	2.2	762	2.1	1838	5.2	1749	5
Official worker	8566	23.9	10102	27.6	4170	11.9	3675	10.4
Sales, services	7035	19.6	9125	24.9	6559	18.7	7812	22.1
Skilled worker, technicians	3750	10.4	4124	11.3	8602	24.6	7060	20
Semi-skilled worker	3543	9.9	3410	9.3	3953	11.3	3935	11.2
Unskilled worker	5230	14.6	5823	15.9	3959	11.3	3761	10.7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160	0.4	87	0.2	317	0.9	368	1
Armed forces worker	84	0.2	78	0.2	191	0.5	160	0.5
Work type								
Regular	28542	79.5	27036	74.4	26842	76.7	27294	77.3
Temporary or part-time	7360	20.5	9324	25.6	8142	23.3	7993	22.7
Shift work								
No	32534	90.6	32519	89.8	27682	79.3	26582	75.4
Yes	3368	9.4	3679	10.2	7213	20.7	8692	24.6
Work hour								
~39	3384	9.4	5239	14.4	14412	41	13669	39.4
40~59	25151	70.1	26170	72	18760	53.3	19844	57.2
60~	7367	20.5	4957	13.6	2015	5.7	1188	3.4
Total	35902	100	36614	100	35187	100	35368	100

2. 차별

1) 차별의 분포

차별에 대한 모든 질문 중에서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를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각 차수 별 분포를 살펴보았다(Table 4).

차별의 있음 비율은 3차 한국에서 4,419명(12.3%), 4차 한국에서 4,718명(13.1%), 5차 유럽에서 2,334명(6.7%), 6차 유럽에서 2,534명(7.2%)으로 유럽보다 한국에서 약 2배 높았다. 한국과 유럽에서 모두 여성과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에서 더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유의하였다. 소득에서 한국에서는 중저 계층이 차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유럽에서는 중상이나 최상 계층에서 높았다. 학력별로는 한국에서는 중졸의 학력에서 차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유럽은 각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유럽에서는 군인에서, 한국에서는 미숙련직에서 가장 차별의 비율이 높았다. 모든 자료에서 근무 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서 차별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N	%	Yes	%		N	%	Yes	%		N	%	Yes	%		N	%	Yes	%	
Sex					<0.001					<0.001					0.009					<0.001
Female	14616	40.7	1955	13.4		17482	48.6	2441	14.0		17710	50.8	1246	7.0		18154	51.8	1422	7.8	
Male	21286	59.3	2464	11.6		18493	51.4	2277	12.3		17171	49.2	1088	6.3		16868	48.2	1112	6.6	
Income					<0.001					<0.001					0.011					<0.001
Lowest	4065	11.6	488	12.0		5659	16.1	793	14.0		4191	16.9	238	5.7		3396	12.2	223	6.6	
Low-middle	13114	37.3	1753	13.4		13495	38.3	1982	14.7		8146	32.9	523	6.4		9820	35.1	694	7.1	
High-middle	10039	28.5	1239	12.3		9619	27.3	1011	10.5		7567	30.6	593	7.8		7663	27.4	634	8.3	
Highest	7956	22.6	851	10.7		6429	18.3	807	12.6		4836	19.5	311	6.4		7064	25.3	601	8.5	
Education					<0.001					<0.001					0.311					0.914
Middle school or below	3894	10.8	592	15.2		4304	12.1	680	15.8		8204	23.6	568	6.9		5612	16.1	431	7.7	
High school	13155	36.6	1563	11.9		13113	36.8	1812	13.8		14213	40.9	949	6.7		14746	42.2	1016	6.9	
College or above	18853	52.5	2264	12.0		18235	51.1	2181	12.0		12371	35.6	811	6.6		14559	41.7	1083	7.4	
Occupation					0.001					<0.001					0.176					0.018
Professional	6756	18.8	873	12.9		3038	8.5	386	12.7		5396	15.5	360	6.7		6714	19.2	471	7.0	
Manager	778	2.2	60	7.7		750	2.1	71	9.5		1832	5.3	103	5.6		1738	5	116	6.7	
Official worker	8566	23.9	1013	11.8		9900	27.5	1240	12.5		4120	11.9	269	6.5		3638	10.4	240	6.6	
Sales, services	7035	19.6	774	11.0		8966	24.9	1140	12.7		6503	18.7	464	7.1		7711	22.1	576	7.5	
Skilled worker, technicians	3750	10.4	452	12.1		4055	11.3	522	12.9		8537	24.6	521	6.1		7007	20.1	500	7.1	
Semi-skilled worker	3544	9.9	395	11.1		3358	9.3	391	11.6		3918	11.3	276	7.0		3893	11.1	248	6.4	
Unskilled worker	5230	14.6	832	15.9		5720	15.9	976	17.1		3914	11.3	297	7.6		3719	10.6	334	9.0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160	0.4	11	6.9		87	0.2	4	4.6		315	0.9	14	4.4		367	1.1	27	7.4	
Armed forces worker	84	0.2	8	9.5		78	0.2	5	6.4		189	0.5	16	8.5		157	0.4	15	9.6	
Work type					<0.001					<0.001					<0.001					<0.001
Regular	28542	79.5	3282	11.5		26618	74.5	3200	12.0		26647	76.8	1627	6.1		27036	77.4	1864	6.9	
Temporary or part-time	7360	20.5	1136	15.4		9113	25.5	1485	16.3		8035	23.2	693	8.6		7910	22.6	664	8.4	
Shift work					<0.001					<0.001					<0.001					<0.001
No	32534	90.6	3915	12.0		31998	89.9	4021	12.6		27452	79.3	1739	6.3		26341	75.4	1804	6.8	
Yes	3368	9.4	503	14.9		3599	10.1	656	18.2		7154	20.7	570	8.0		8605	24.6	721	8.4	
Work hour					0.094					0.011					0.190					0.002
~39	3384	9.4	445	13.2		5128	14.3	710	13.8		14310	41	1006	7.0		13565	39.4	1092	8.1	
40~59	25151	70.1	2982	11.9		25718	72	3207	12.5		18594	53.3	1183	6.4		19644	57.1	1280	6.5	
60~	7367	20.5	991	13.5		4898	13.7	766	15.6		1977	5.7	145	7.3		1177	3.4	116	9.9	
Total	35902	100	4419	12.3		35975	100	4718	13.1		34881	100	2334	6.7		35022	100	2534	7.2	

차별에 대한 질문이 한국의 3차 조사는 5개, 4차 조사는 10개, 유럽의 5차, 6차 조사는 7개로 그 내용과 개수가 달라 모든 조사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성, 연령의 두 개 변수에 대한 차별을 묻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를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각 차수별 분포를 살펴보았다(Table 5).

여기에서도 역시 차별의 비율은 3차 한국에서 2,179명(6.1%), 4차 한국에서 2,594명(7.1%), 5차 유럽에서 1,577명(4.5%), 6차 유럽에서 1,715명(4.9%)으로 한국에서 더 높았다. 유럽에서는 소득간 차별 비율의 차이에 유의성이 없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중졸의 학력이 차별을 받는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5차 유럽에서 군인 다음으로 전문직에서 차별 비율이 높았고 4차 한국 자료에서는 미숙련직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에서 차별 비율이 높았다. 이전 비교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에서 차별 비율이 더 높았고 이 차이는 한국에서 더 컸다.

Table 5.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of sex, age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N	%	Yes	%		N	%	Yes	%		N	%	Yes	%		N	%	Yes	%	
Sex					<0.001					<0.001					<0.001					<0.001
Female	14617	40.7	1034	7.1		17698	48.6	1475	8.3		17773	50.8	946	5.3		18260	51.8	1051	5.8	
Male	21285	59.3	1145	5.4		18693	51.4	1119	6.0		17243	49.2	631	3.7		16971	48.2	664	3.9	
Income					<0.001					<0.001					0.531					0.058
Lowest	4065	11.6	290	7.1		5729	16.1	498	8.7		4203	16.9	167	4.0		3420	12.2	172	5.0	
Low-middle	13114	37.3	942	7.2		13641	38.3	1163	8.5		8189	33	381	4.7		9885	35.2	479	4.8	
High-middle	10038	28.5	578	5.8		9725	27.3	502	5.2		7586	30.6	349	4.6		7701	27.4	416	5.4	
Highest	7956	22.6	329	4.1		6508	18.3	361	5.5		4850	19.5	211	4.4		7088	25.2	392	5.5	
Education					<0.001					<0.001					0.065					0.001
Middle school or below	3893	10.8	389	10.0		4359	12.1	472	10.8		8236	23.6	356	4.3		5648	16.1	238	4.2	
High school	13155	36.6	838	6.4		13223	36.7	1019	7.7		14266	40.9	619	4.3		14847	42.3	706	4.8	
College or above	18854	52.5	952	5.0		18478	51.2	1075	5.8		12420	35.6	599	4.8		14629	41.6	771	5.3	
Occupation					<0.001					<0.001					0.011					0.317
Professional	6756	18.8	315	4.7		3070	8.4	184	6.0		5417	15.5	273	5.0		6739	19.2	356	5.3	
Manager	779	2.2	23	3.0		753	2.1	43	5.7		1836	5.3	79	4.3		1744	5	77	4.4	
Official worker	8566	23.9	470	5.5		10045	27.6	587	5.8		4137	11.9	204	4.9		3658	10.4	177	4.8	
Sales, services	7035	19.6	387	5.5		9067	24.9	659	7.3		6525	18.7	302	4.6		7778	22.1	380	4.9	
Skilled worker, technicians	3750	10.4	243	6.5		4087	11.2	268	6.6		8568	24.6	353	4.1		7040	20	338	4.8	
Semi-skilled worker	3543	9.9	227	6.4		3394	9.3	206	6.1		3932	11.3	170	4.3		3923	11.2	152	3.9	
Unskilled worker	5230	14.6	502	9.6		5785	15.9	639	11.0		3936	11.3	169	4.3		3744	10.7	200	5.3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160	0.4	11	6.9		88	0.2	4	4.5		317	0.9	5	1.6		367	1	18	4.9	
Armed forces worker	84	0.2	2	2.4		79	0.2	4	5.1		190	0.5	12	6.3		160	0.5	11	6.9	
Work type					<0.001					<0.001					<0.001					<0.001
Regular	28541	79.5	1563	5.5		26902	74.4	1709	6.4		26723	76.8	1117	4.2		27201	77.4	1260	4.6	
Temporary or part-time	7360	20.5	615	8.4		9236	25.6	867	9.4		8093	23.2	451	5.6		7954	22.6	452	5.7	
Shift work					0.001					<0.001					0.001					0.002
No	32534	90.6	1930	5.9		32356	89.9	2137	6.6		27558	79.3	1187	4.3		26488	75.4	1232	4.7	
Yes	3368	9.4	249	7.4		3641	10.1	431	11.8		7178	20.7	374	5.2		8663	24.6	474	5.5	
Work hour					0.088					0.035					0.177					0.484
~39	3383	9.4	247	7.3		5192	14.4	427	8.2		14350	41	658	4.6		13626	39.4	698	5.1	
40~59	25151	70.1	1401	5.6		26031	72	1694	6.5		18675	53.3	815	4.4		19778	57.2	905	4.6	
60~	7367	20.5	530	7.2		4933	13.6	463	9.4		1991	5.7	104	5.2		1184	3.4	78	6.6	
Total	35902	100	2179	6.1		36390	100	2594	7.1		35016	100	1577	4.5		35240	100	1715	4.9	

마지막으로 4차 한국과 6차 유럽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성, 연령,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묻는 7개 질문에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를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두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았다(Table 6).

이 비교에서도 차별의 비율은 4차 한국에서 2,912명(8.1%), 6차 유럽에서 2,534명(7.2%)으로 한국이 더 높았으며, 변수별로 보이는 경향은 비슷하였다.

Table 6. Distribution of discrimination of sex, age, nationality, religion, rac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Characteristics	4th KWCS (2014)					6th EWCS (2015)				
	Total		Discrimination		p-value	Total		Discrimination		p-value
	N	%	Yes	%		N	%	Yes	%	
Sex					<0.001					<0.001
Female	17574	48.6	1613	9.2		18154	51.8	1422	7.8	
Male	18568	51.4	1299	7.0		16868	48.2	1112	6.6	
Income					<0.001					<0.001
Lowest	5699	16.1	539	9.5		3396	12.2	223	6.6	
Low-middle	13542	38.3	1294	9.6		9820	35.1	694	7.1	
High-middle	9668	27.3	585	6.1		7663	27.4	634	8.3	
Highest	6454	18.3	420	6.5		7064	25.3	601	8.5	
Education					<0.001					0.914
Middle school or below	4339	12.1	497	11.5		5612	16.1	431	7.7	
High school	13162	36.7	1135	8.6		14746	42.2	1016	6.9	
College or above	18316	51.1	1248	6.8		14559	41.7	1083	7.4	
Occupation					<0.001					0.018
Professional	3053	8.5	212	6.9		6714	19.2	471	7.0	
Manager	750	2.1	49	6.5		1738	5	116	6.7	
Official worker	9942	27.5	693	7.0		3638	10.4	240	6.6	
Sales, services	9009	24.9	715	7.9		7711	22.1	576	7.5	
Skilled worker, technicians	4067	11.3	309	7.6		7007	20.1	500	7.1	
Semi-skilled worker	3373	9.3	233	6.9		3893	11.1	248	6.4	
Unskilled worker	5759	15.9	693	12.0		3719	10.6	334	9.0	
Agricultural, forestry and	88	0.2	4	4.5		367	1.1	27	7.4	
Armed forces worker	77	0.2	4	5.2		157	0.4	15	9.6	
Work type					<0.001					<0.001
Regular	26724	74.5	1945	7.3		27036	77.4	1864	6.9	
Temporary or part-time	9168	25.5	948	10.3		7910	22.6	664	8.4	
Shift work					<0.001					<0.001
No	32141	89.9	2415	7.5		26341	75.4	1804	6.8	
Yes	3617	10.1	469	13.0		8605	24.6	721	8.4	
Work hour					0.006					0.002
~39	5164	14.4	466	9.0		13565	39.4	1092	8.1	
40~59	25837	72	1910	7.4		19644	57.1	1280	6.5	
60~	4907	13.7	521	10.6		1177	3.4	116	9.9	
Total	36142	100	2912	8.1		35022	100	2534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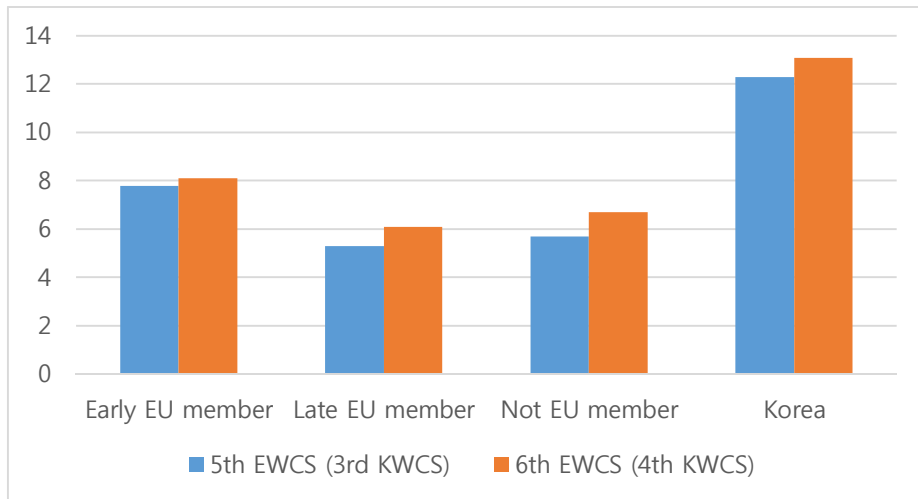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차별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차별의 유럽 5차 조사에서 6차 조사로의 변화를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비교하여 한국의 3차 조사에서 4차 조사로의 변화와 함께 제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Table 7, Figure 1). 5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인 15개 국가의 대상자 18,405명 중 1,443명(7.8%)이 차별의 경험이 있었고 6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 15개 국가의 대상자 17,731명 중 1,441명(8.1%)이 차별의 경험이 있었다. 후기 가입국은 5.3%에서 6.1%로, 미가입국은 5.7%에서 6.7%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 3차와 4차 자료와 비교해보면 3차 한국에서는 전체 대상자 35,902명 중 4,419명(12.3%), 4차 한국에서는 전체 대상자 35,975명 중 4,718명(13.1%)이 차별 경험이 있어 한국의 차별 비율 자체가 높으며 그 증가율은 유럽 연합 초기 가입국보다는 가파르고 후기 가입국이나 미가입국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Change of discrimination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Discrimination	5th EWCS (3rd KWCS)					6th EWCS (4th KWCS)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Early EU member	15	18405	1443	7.8	<0.001	15	17731	1441	8.1	<0.001
Late EU member	12	11588	614	5.3		13	11543	708	6.1	
Not EU member	7	4888	277	5.7		7	5757	385	6.7	
Korea	1	35902	4419	12.3		1	35975	4718	13.1	

Figure 1. Bar graph of change of discrimination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3) 한국과 유럽에서 차별과 연관된 요인

차별과 연관성이 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 4차, 유럽의 6차 자료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 별 비차비(Crude odds ratio)와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비차비(Adjusted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Table 8).

여성은 한국과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차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유럽 OR=0.79, 95%CI 0.71-0.87, 한국 OR=0.84, 95%CI 0.78-0.90). 유럽은 고소득일수록 차별의 비차비가 높아졌으며 한국도 보정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보정 후에는 고소득 그룹에서 가장 비차비가 높았다. 직업은 유럽에서는 미숙련직에서 유의하게 비차비가 높았으나, 한국은 판매-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에서 비차비가 낮게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 장시간 근무자에서 한국과 유럽 모두 유의한 비차비의 상승을 보였다.

Table 8.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scrimination

Characteristics	4th KWCS (2014)				6th EWCS (2015)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Sex								
Female	1.00		1.00		1.00		1.00	
Male	0.87	0.81-0.92	0.84	0.78-0.90	0.83	0.77-0.90	0.78	0.71-0.87
Income								
Lowest	1.00		1.00		1.00		1.00	
Low-middle	1.06	0.97-1.15	1.19	1.06-1.34	1.08	0.93-1.27	1.15	0.98-1.35
High-middle	0.72	0.65-0.80	0.94	0.81-1.08	1.28	1.10-1.50	1.43	1.21-1.69
Highest	0.88	0.79-0.98	1.22	1.05-1.42	1.32	1.13-1.55	1.64	1.37-1.95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00		1.00		1.00		1.00	
High school	0.86	0.78-0.94	1.00	0.89-1.12	0.89	0.79-1.00	0.94	0.82-1.07
College or above	0.72	0.66-0.80	0.95	0.83-1.08	0.97	0.86-1.09	1.10	0.95-1.27
Occupation								
Professional	1.00		1.00		1.00		1.00	
Manager	0.76	0.58-1.00	0.77	0.59-1.02	0.95	0.77-1.17	0.93	0.74-1.19
Official worker	1.04	0.92-1.18	1.02	0.93-1.21	0.94	0.80-1.10	1.02	0.85-1.22
Sales, services	1.06	0.93-1.20	0.86	0.75-0.99	1.07	0.94-1.21	1.12	0.96-1.32
Skilled worker, technicians	1.07	0.93-1.24	1.00	0.86-1.17	1.02	0.89-1.16	1.10	0.94-1.28
Semi-skilled worker	0.96	0.82-1.11	0.89	0.75-1.06	0.90	0.77-1.06	1.14	0.93-1.38
Unskilled worker	1.49	1.31-1.70	1.16	0.99-1.37	1.31	1.13-1.51	1.50	1.24-1.80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0.35	0.13-0.96	0.29	0.09-0.83	1.05	0.70-1.58	1.35	0.85-2.14
Armed forces worker	0.46	0.18-1.19	0.50	0.19-1.28	1.40	0.82-2.40	1.72	0.93-3.18
Work type								
Regular	1.00		1.00		1.00		1.00	
Temporary or part-time	1.43	1.33-1.52	1.37	1.26-1.50	1.24	1.13-1.36	1.29	1.16-1.43
Shift work								
No	1.00		1.00		1.00		1.00	
Yes	1.55	1.42-1.70	1.54	1.40-1.70	1.24	1.14-1.36	1.30	1.17-1.44
Work hour								
~39	1.00		1.00		1.00		1.00	
40~59	0.89	0.81-0.97	1.07	0.95-1.21	0.80	0.73-0.87	0.88	0.80-0.97
60~	1.15	1.03-1.29	1.29	1.12-1.49	1.25	1.02-1.56	1.47	1.17-1.84

3. 성희롱

1) 성희롱의 분포

성희롱에 대한 항목 2개 중에서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를 성희롱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각 차수 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Table 9).

성희롱의 있음 비율은 3차 한국에서 418명(1.2%), 4차 한국에서 400명(1.1%), 5차 유럽에서 100명(2.0%), 6차 유럽에서 727명(2.1%)으로 한국보다 유럽에서 약 2배 높았다. 한국과 유럽 모두 성별에서는 여성이, 직업에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그리고 교대근무자에서 성희롱의 비율이 높았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한국에서는 중간 계층에서 가장 높았다.

Table 9. Distribution of sexual harassment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Total		Sexual harassment		p-value	Total		Sexual harassment		p-value	Total		Sexual harassment		p-value	Total		Sexual harassment		p-value
	N	%	Yes	%		N	%	Yes	%		N	%	Yes	%		N	%	Yes	%	
Sex					<0.001					<0.001					<0.001					<0.001
Female	14617	40.7	310	2.1		17503	48.6	340	1.9		17792	50.7	518	2.9		18255	51.8	563	3.1	
Male	21286	59.3	108	0.5		18527	51.4	60	0.3		17284	49.3	181	1.0		16976	48.2	164	1.0	
Income					<0.001					<0.001					0.002					<0.001
Lowest	4065	11.6	32	0.8		5662	16.1	69	1.2		4214	16.9	57	1.4		3415	12.2	52	1.5	
Low-middle	13115	37.3	240	1.8		13482	38.2	196	1.5		8204	33	158	1.9		9887	35.2	194	2.0	
High-middle	10039	28.5	98	1.0		9662	27.4	79	0.8		7593	30.5	189	2.5		7706	27.4	186	2.4	
Highest	7956	22.6	39	0.5		6450	18.3	47	0.7		4865	19.6	101	2.1		7097	25.3	187	2.6	
Education					0.052					0.55					0.010					0.031
Middle school or below	3894	10.8	18	0.5		4298	12	26	0.6		8265	23.6	141	1.7		5649	16.1	88	1.6	
High school	13155	36.6	181	1.4		13114	36.7	200	1.5		14278	40.8	279	2.0		14843	42.3	323	2.2	
College or above	18854	52.5	219	1.2		18302	51.2	175	1.0		12439	35.6	275	2.2		14635	41.7	315	2.2	
Occupation					0.026					<0.001					<0.001					<0.001
Professional	6756	18.8	61	0.9		3033	8.4	30	1.0		5429	15.5	95	1.7		6743	19.2	129	1.9	
Manager	778	2.2	5	0.6		753	2.1	2	0.3		1832	5.2	32	1.7		1746	5	23	1.3	
Official worker	8566	23.9	93	1.1		9952	27.6	90	0.9		4150	11.9	82	2.0		3659	10.4	61	1.7	
Sales, services	7035	19.6	176	2.5		8972	24.9	224	2.5		6532	18.7	265	4.1		7779	22.1	317	4.1	
Skilled worker, technicians	3749	10.4	32	0.9		4061	11.3	25	0.6		8579	24.6	149	1.7		7038	20	116	1.6	
Semi-skilled worker	3543	9.9	15	0.4		3349	9.3	10	0.3		3941	11.3	16	0.4		3923	11.2	27	0.7	
Unskilled worker	5230	14.6	34	0.7		5726	15.9	18	0.3		3949	11.3	49	1.2		3741	10.6	49	1.3	
Agricultural, forestry and	160	0.4	0	0.0		87	0.2	1	1.1		316	0.9	3	0.9		366	1	2	0.5	
Armed forces worker	84	0.2	0	0.0		78	0.2	1	1.3		190	0.5	2	1.1		160	0.5	1	0.6	
Work type					0.002					0.791					<0.001					0.106
Regular	28542	79.5	307	1.1		26653	74.5	298	1.1		26767	76.7	484	1.8		27203	77.4	543	2.0	
Temporary or part-time	7360	20.5	111	1.5		9129	25.5	99	1.1		8110	23.3	213	2.6		7950	22.6	182	2.3	
Shift work					0.252					0.002					<0.001					<0.001
No	32534	90.6	372	1.1		32031	89.9	340	1.1		27613	79.4	471	1.7		26492	75.4	430	1.6	
Yes	3368	9.4	46	1.4		3605	10.1	59	1.6		7178	20.6	220	3.1		8658	24.6	295	3.4	
Work hour					0.019					0.53					0.419					<0.001
~39	3384	9.4	30	0.9		5116	14.3	66	1.3		14375	41	326	2.3		13624	38.7	347	2.5	
40~59	25151	70.1	286	1.1		25771	72	275	1.1		18701	53.3	306	1.6		19775	56.1	330	1.7	
60~	7368	20.5	102	1.4		4899	13.7	57	1.2		2000	5.7	67	3.4		1188	5.2	28	2.4	
Total	35903	100	418	1.2		36030	100	400	1.1		35076	100	699	2.0		35231	100	727	2.1	

전체 성희롱의 비율은 유럽이 더 높았으나, 성별 간 비율 차이에서 유럽은 여성이 남성의 약 3배 더 높았고, 한국은 여성이 남성의 4~6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여 여성만 따로 분석하였다(Table 10).

그러자 유럽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성희롱 경험이 높은 경향은 더 뚜렷해졌고, 학력별,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는데 4차 한국자료에서만 판매-서비스직에서 성희롱 비율이 높은 것이 유의하였다. 또한 3차, 4차 한국에서 근로시간이 길수록 성희롱 경험이 높다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Table 10. Distribution of sexual harassment (female)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Sexual harassment			p-value	Sexual harassment			p-value	Sexual harassment			p-value	Sexual harassment			p-value
	N	Yes	%		N	Yes	%		N	Yes	%		N	Yes	%	
Income				0.019				0.211				<0.001				<0.001
Lowest	2868	26	0.9		4020	65	1.6		2384	45	1.9		2155	42	1.9	
Low-middle	7324	189	2.6		8461	176	2.1		4498	127	2.8		5549	146	2.6	
High-middle	2738	64	2.3		3377	66	2.0		3987	147	3.7		3999	147	3.7	
Highest	1396	27	1.9		1288	28	2.2		1924	70	3.6		2936	146	5.0	
Education				0.001				0.337				0.317				0.511
Middle school or below	1870	12	0.6		2315	18	0.8		3855	102	2.6		2582	61	2.4	
High school	5422	130	2.4		6678	173	2.6		6916	205	3.0		7231	249	3.4	
College or above	7325	168	2.3		8379	149	1.8		6976	210	3.0		8397	251	3.0	
Occupation				0.473				0.003				0.66				0.809
Professional	3482	51	1.5		1847	23	1.2		3285	69	2.1		4237	107	2.5	
Manager	65	2	3.1		106	2	1.9		704	21	3.0		740	17	2.3	
Official worker	3354	65	1.9		4808	77	1.6		2797	66	2.4		2461	53	2.2	
Sales, services	4431	156	3.5		6279	209	3.3		4366	212	4.9		5082	258	5.1	
Skilled worker, technicians	494	10	2.0		1022	13	1.3		3840	107	2.8		2816	77	2.7	
Semi-skilled worker	483	7	1.4		727	7	1.0		565	5	0.9		578	8	1.4	
Unskilled worker	2246	19	0.8		2662	9	0.3		2078	32	1.5		2192	42	1.9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61	0	0.0		42	1	2.4		84	2	2.4		99	1	1.0	
Armed forces worker	0	0	0.0		2	0	0.0		17	1	5.9		15	0	0.0	
Work type				0.397				0.155				0.001				0.429
Regular	10912	225	2.1		12140	248	2.0		13625	367	2.7		14171	429	3.0	
Temporary or part-time	3705	85	2.3		5238	90	1.7		4080	151	3.7		4035	132	3.3	
Shift work				0.001				<0.001				<0.001				<0.001
No	13708	277	2.0		16086	292	1.8		14044	343	2.4		13671	334	2.4	
Yes	909	33	3.6		1229	47	3.8		3624	170	4.7		4538	228	5.0	
Work hour				<0.001				0.028				0.206				0.084
~39	2174	26	1.2		3475	59	1.7		8958	261	2.9		8689	289	3.3	
40~59	9987	209	2.1		12180	232	1.9		8222	223	2.7		8984	247	2.7	
60~	2456	75	3.1		1748	47	2.7		612	34	5.6		298	12	4.0	
Total	14616	310	2.1		17504	340	1.9		17792	518	2.9		18255	56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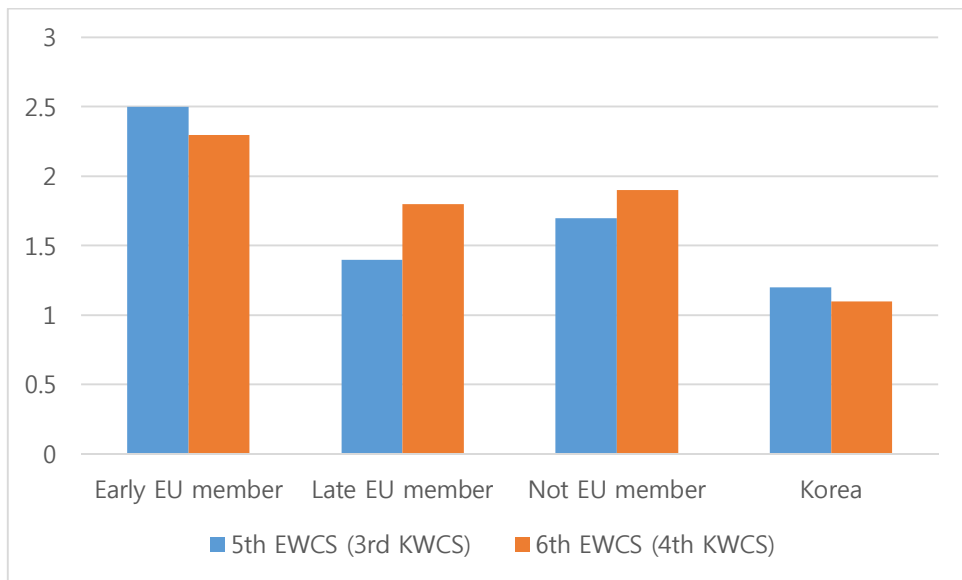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성희롱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성희롱의 유럽 5차 조사에서 6차 조사로의 변화를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비교하여 한국의 3차 조사에서 4차 조사로의 변화와 함께 제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Table 11, Figure 2). 5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인 15개 국가의 대상자 18,490명 중 454명(2.5%)이 성희롱 경험이 있었고 6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 15개 국가의 대상자 17,822명 중 417명(2.3%)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어 감소세를 보였다. 후기 가입국은 1.4%에서 1.8%로, 미가입국은 1.7%에서 1.9%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3차 한국에서는 전체 대상자 35,903명 중 418명(1.2%), 4차 한국에서는 전체 대상자 36,030명 중 400명(1.1%)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어 유럽 모든 국가 그룹 보다 성희롱 비율 자체가 낮았으며, 유럽 연합 초기 가입국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Table 11. Change of sexual harassment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Sexual harassment	5th EWCS (3rd KWCS)					6th EWCS (4th KWCS)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Early EU member	15	18490	454	2.5	<0.001	15	17822	417	2.3	0.002
Late EU member	13	11638	160	1.4		13	11639	204	1.8	
Not EU member	8	4948	85	1.7		7	5779	107	1.9	
Korea	1	35903	418	1.2		1	36030	400	1.1	

Figure 2. Bar graph of change of sexual harassment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3) 한국과 유럽에서 성희롱과 연관된 요인

성희롱과 연관성이 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 4차, 유럽의 6차 자료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 별 비차비(Crude odds ratio)와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비차비(Adjusted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Table 12).

성희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 판매-서비스직,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였다. 성별은 한국과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성희롱에 영향이 있었는데 여성과 남성의 비차비의 차이는 한국에서 더 컸다(유럽 남성 OR=0.31, 95%CI 0.25-0.39, 한국 남성 OR=0.20, 95%CI 0.15-0.27). 유럽은 보정 전 후 모두 고소득일수록 성희롱 비차비가 높았으나, 한국은 보정 전에는 고소득자는 비차비가 낮았고 보정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과 유럽 모두 판매-서비스직과 교대근무자에서 비차비가 증가하였고, 장시간 근무자는 유럽에서만 유의한 비차비 상승을 보였다.

Table 12.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xual harassment

Characteristics	4th KWCS (2014)				6th EWCS (2015)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Sex								
Female	1.00		1.00		1.00		1.00	
Male	0.17	0.14-0.22	0.20	0.15-0.27	0.31	0.26-0.37	0.31	0.25-0.38
Income								
Lowest	1.00		1.00		1.00		1.00	
Low-middle	1.20	0.91-1.58	1.08	0.74-1.56	1.29	0.95-1.76	1.43	1.03-1.96
High-middle	0.67	0.48-0.92	0.99	0.64-1.54	1.60	1.17-2.18	2.07	1.50-2.86
Highest	0.60	0.41-0.86	1.27	0.78-2.07	1.75	1.28-2.39	3.10	2.21-4.34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00		1.00		1.00		1.00	
High school	2.59	1.71-3.91	1.35	0.85-2.14	1.41	1.11-1.78	1.23	0.94-1.60
College or above	1.62	1.06-2.45	1.00	0.61-1.64	1.39	1.10-1.76	1.20	0.90-1.60
Occupation								
Professional	1.00		1.00		1.00		1.00	
Manager	0.25	0.06-1.08	0.52	0.12-2.32	0.68	0.44-1.07	0.54	0.30-0.98
Official worker	0.91	0.60-1.37	1.09	0.71-1.67	0.87	0.64-1.18	1.00	0.71-1.41
Sales, services	2.55	1.74-3.73	2.07	1.34-3.19	2.18	1.77-2.68	2.16	1.65-2.82
Skilled worker, technicians	0.61	0.36-1.03	0.87	0.89-1.55	0.86	0.67-1.11	1.08	0.81-1.44
Semi-skilled worker	0.30	0.15-0.61	0.42	0.19-0.92	0.36	0.23-0.54	0.77	0.47-1.25
Unskilled worker	0.31	0.17-0.56	0.36	0.18-0.73	0.68	0.49-0.95	0.89	0.59-1.33
Agricultural, forestry and	0.68	0.05-9.11	1.04	0.08-14.39	0.28	0.07-1.14	0.69	0.17-2.83
Armed forces worker	1.48	0.23-9.65	0.00	0	0.32	0.05-2.32	0.83	0.11-6.08
Work type								
Regular	1.00		1.00		1.00		1.00	
Temporary or part-time	0.97	0.77-1.22	0.79	0.60-1.04	1.15	0.97-1.36	1.24	1.02-1.52
Shift work								
No	1.00		1.00		1.00		1.00	
Yes	1.56	1.18-2.06	1.78	1.33-2.38	2.14	1.84-2.48	1.85	1.55-2.20
Work hour								
~39	1.00		1.00		1.00		1.00	
40~59	0.83	0.63-1.09	0.94	0.65-1.36	0.65	0.56-0.76	0.86	0.72-1.02
60~	0.90	0.63-1.30	1.00	0.64-1.55	0.92	0.63-1.36	1.72	1.13-2.62

이어 여성만 따로 분석하였을 때는 전체 성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 판매-서비스직에서 유의한 비차비 상승을 보였고, 판매-서비스직에서는 보정한 비차비가 유럽보다 한국 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13).

Table 13.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xual harassment (Female)

Characteristics	4th KWCS (N=14066)				6th EWCS (N=14275)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Income								
Lowest	1.00		1.00		1.00		1.00	
Low-middle	1.30	0.98-1.73	1.01	0.69-1.50	1.36	0.96-1.92	1.38	0.97-1.96
High-middle	1.22	0.86-1.73	1.07	0.67-1.69	1.92	1.36-2.72	2.20	1.53-3.15
Highest	1.35	0.86-2.12	1.16	0.67-2.01	2.63	1.86-3.73	3.70	2.54-5.39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00		1.00		1.00		1.00	
High school	3.36	2.07-5.45	0.49	0.89-2.51	1.47	1.11-1.96	1.33	0.97-1.83
College or above	2.28	1.40-3.71	1.21	0.69-2.11	1.27	0.96-1.69	1.28	0.91-1.80
Occupation								
Professional	1.00		1.00		1.00		1.00	
Manager	1.43	0.32-6.44	1.42	0.31-6.45	0.91	0.54-1.52	0.60	0.31-1.17
Official worker	1.30	0.82-2.09	1.26	0.78-2.04	0.85	0.61-1.19	1.06	0.73-1.54
Sales, services	2.75	1.78-4.25	2.43	1.51-3.91	2.06	1.64-2.60	2.27	1.69-3.05
Skilled worker, technicians	1.06	0.54-2.09	0.85	0.41-1.75	1.09	0.81-1.46	1.17	0.84-1.62
Semi-skilled worker	0.73	0.31-1.75	0.65	0.26-1.60	0.54	0.26-1.12	0.85	0.38-1.88
Unskilled worker	0.28	0.13-0.61	0.30	0.13-0.72	0.75	0.53-1.08	1.04	0.66-1.63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	1.14	0.08-15.60	1.56	0.11-22.16	0.39	0.05-2.85	0.73	0.10-5.38
Armed forces worker	0.00	0	0.00	0	0.00	0	0.00	0
Work type								
Regular	1.00		1.00		1.00		1.00	
Temporary or part-time	0.84	0.65-1.07	0.84	0.63-1.13	1.08	0.89-1.32	1.19	0.94-1.50
Shift work								
No	1.00		1.00		1.00		1.00	
Yes	2.15	1.57-2.94	1.71	1.23-2.37	2.11	1.78-2.51	1.88	1.54-2.29
Work hour								
~39	1.00		1.00		1.00		1.00	
40~59	1.13	0.84-1.50	0.94	0.64-1.39	0.82	0.69-0.98	0.90	0.74-1.10
60~	1.59	1.07-2.34	1.01	0.63-1.62	1.22	0.68-2.20	1.25	0.65-2.41

4. 폭력

1) 폭력의 분포

폭력에 대한 모든 질문 중에서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폭력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여 각 차수 별 분포를 살펴보았다(Table 14).

폭력의 있음 비율은 3차 한국에서 1,919명(5.3%), 4차 한국에서 2,537명(7.0%), 5차 유럽에서 4,989명(14.3%), 6차 유럽에서 5,468명(15.6%)으로 한국보다 유럽에서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직업에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교대근무자에서, 근무시간이 긴 그룹에서 더 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유의하였다. 유럽에서 여성이 더 폭력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유의했으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의 경험이 많았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폭력의 비율이 더 높았고, 유럽은 정규직에서 더 폭력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과 유럽 모두 교대근무자에서 폭력의 비율이 높았는데, 비교대근무자에 비해서 그 비율이 한국이 유럽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4. Distribution of violence

Characteristics	3rd KWCS (2011)					4th KWCS (2014)					5th EWCS (2010)					6th EWCS (2015)				
	Total		Violence		p-value	Total		Violence		p-value	Total		Violence		p-value	Total		Violence		p-value
	N	%	Yes	%		N	%	Yes	%		N	%	Yes	%		N	%	Yes	%	
Sex					0.383					0.451					<0.001					<0.001
Female	14617	40.7	763	5.2		17494	48.6	1251	7.2		17717	50.7	2731	15.4		18175	51.8	3045	16.8	
Male	21286	59.3	1156	5.4		18510	51.4	1286	6.9		17226	49.3	2258	13.1		16895	48.2	2423	14.3	
Income					<0.001					<0.001					<0.001					<0.001
Lowest	4064	11.6	186	4.6		5645	16	364	6.4		4195	16.9	443	10.6		3396	12.1	376	11.1	
Low-middle	13114	37.3	884	6.7		13472	38.2	1183	8.8		8172	33	1055	12.9		9849	35.2	1356	13.8	
High-middle	10039	28.5	552	5.5		9662	27.4	586	6.1		7573	30.5	1346	17.8		7679	27.4	1404	18.3	
Highest	7956	22.6	244	3.1		6451	18.3	320	5.0		4855	19.6	820	16.9		7069	25.3	1501	21.2	
Education					<0.001					<0.001					<0.001					<0.001
Middle school or below	3894	10.8	206	5.3		4287	12	311	7.3		8234	23.6	1110	13.5		5632	16.1	770	13.7	
High school	13156	36.6	897	6.8		13090	36.7	1121	8.6		14223	40.8	1911	13.4		14769	42.2	2182	14.8	
College or above	18853	52.5	816	4.3		18311	51.3	1083	5.9		12393	35.6	1950	15.7		14566	41.7	2508	17.2	
Occupation					<0.001					<0.001					<0.001					<0.001
Professional	6756	18.8	218	3.2		3033	8.4	159	5.2		5408	15.5	791	14.6		6715	19.2	1151	17.1	
Manager	778	2.2	36	4.6		752	2.1	31	4.1		1831	5.3	271	14.8		1739	5	269	15.5	
Official worker	8565	23.9	299	3.5		9959	27.7	464	4.7		4134	11.9	558	13.5		3643	10.4	469	12.9	
Sales, services	7035	19.6	503	7.1		8958	24.9	967	10.8		6502	18.7	1213	18.7		7731	22.1	1558	20.2	
Skilled worker, technicians	3750	10.4	287	7.7		4059	11.3	303	7.5		8540	24.6	1239	14.5		7015	20	1124	16.0	
Semi-skilled worker	3544	9.9	207	5.8		3341	9.3	183	5.5		3932	11.3	389	9.9		3907	11.2	386	9.9	
Unskilled worker	5230	14.6	363	6.9		5718	15.9	420	7.3		3931	11.3	456	11.6		3723	10.6	454	12.2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160	0.4	2	1.3		86	0.2	3	3.5		316	0.9	29	9.2		365	1	28	7.7	
Armed forces worker	84	0.2	3	3.6		78	0.2	7	9.0		191	0.5	25	13.1		159	0.5	25	15.7	
Work type					<0.001					<0.001					0.011					<0.001
Regular	28542	79.5	1367	4.8		26647	74.5	1785	6.7		26656	76.7	3880	14.6		27078	77.4	4333	16.0	
Temporary or part-time	7360	20.5	551	7.5		9108	25.5	740	8.1		8086	23.3	1086	13.4		7916	22.6	1122	14.2	
Shift work					<0.001					<0.001					<0.001					<0.001
No	32534	90.6	1569	4.8		32021	89.9	1976	6.2		27516	79.4	3509	12.8		23681	75.4	3591	15.2	
Yes	3368	9.4	349	10.4		3594	10.1	528	14.7		7146	20.6	1452	20.3		8615	24.6	1871	21.7	
Work hour					<0.001					<0.001					<0.001					<0.001
~39	3384	9.4	156	4.6		5103	14.3	325	6.4		14331	41	2291	16.0		13582	39.4	2391	17.6	
40~59	25151	70.1	1173	4.7		25758	72	1627	6.3		18619	53.3	2379	12.8		19678	57.1	2751	14.0	
60~	7367	20.5	590	8.0		4901	13.7	565	11.5		1993	5.7	319	16.0		1181	3.4	228	19.3	
Total	35903	100	1919	5.3		36004	100	2537	7.0		34943	100	4989	14.3		35070	100	5468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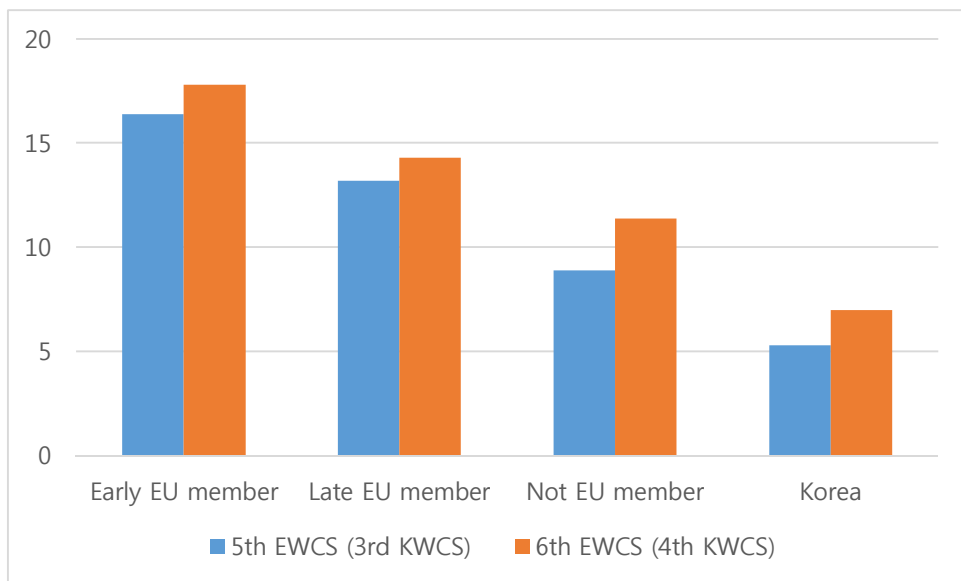
2)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 폭력의 변화 및 우리나라와 비교

폭력의 유럽 5차 조사에서 6차 조사로의 변화를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비교하여 한국의 3차 조사에서 4차 조사로의 변화와 함께 제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Table 15, Figure 3). 5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인 15개 국가의 대상자 18,439명 중 3,022명(16.4%)이 성희롱 경험이 있었고 6차 유럽에서는 초기 가입국 15개 국가의 대상자 17,766명 중 3,166명(17.8%)이 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후기 가입국은 13.2%에서 14.3%로, 미가입국은 8.9%에서 11.4%의 증가를 보였다. 한국은 3차 5.3%에서 4차 7.0%로 변화를 보였는데 폭력의 비율 자체는 낮았으나 유럽 모든 국가 그룹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Table 15. Change of violence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Violence	5th EWCS (3rd KWCS)					6th EWCS (4th KWCS)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N(Nation)	N(person)	N(yes)	%(yes)	p-value
Early EU member	15	18439	3022	16.4	<0.001	15	17766	3166	17.8	<0.001
Late EU member	13	11573	1526	13.2		13	11557	1649	14.3	
Not EU member	8	4931	441	8.9		7	5756	656	11.4	
Korea	1	35903	1919	5.3		1	36004	2537	7.0	

Figure 3. Bar graph of change of violence of European nations classified by time of EU membership and Korea



3) 한국과 유럽에서 폭력과 연관된 요인

폭력과 연관성이 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 4차, 유럽의 6차 자료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 별 비차비(Crude odds ratio)와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비차비(Adjusted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Table 16).

성별은 유럽에서 유의하게 여성이 폭력에 대한 비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폭력의 비차비가 상승하였고, 한국은 중저 그룹에서 높았다. 학력에서도 유럽이 고학력자에서 비차비가 높았으며 한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유럽 모두 판매-서비스직, 교대근무자, 장시간 근무자에서 폭력에 대한 비차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모두 한국에서 그 값이 더 컸다. 고용 형태에서는 유럽은 비정규직에서 폭력의 비차비가 낮은 것과 반대로 한국은 높게 나타났는데 보정한 비차비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졌다.

Table 16.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violence

Characteristics	4th KWCS (2014)				6th EWCS (2015)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Sex								
Female	1.00		1.00		1.00		1.00	
Male	0.98	0.90-1.06	1.06	0.96-1.16	0.86	0.81-0.91	0.83	0.78-0.90
Income								
Lowest	1.00		1.00		1.00		1.00	
Low-middle	1.40	1.24-1.58	1.38	1.17-1.62	1.32	1.15-1.50	1.32	1.17-1.50
High-middle	0.94	0.82-1.07	1.11	0.92-1.34	1.92	1.68-2.19	1.91	1.68-2.17
Highest	0.76	0.65-0.88	0.97	0.78-1.19	2.33	2.05-2.66	2.44	2.14-2.80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00		1.00		1.00		1.00	
High school	1.21	1.06-1.39	1.03	0.88-1.20	1.07	0.98-1.18	1.01	0.91-1.12
College or above	0.80	0.70-0.92	0.92	0.78-1.10	1.32	1.20-1.44	1.15	1.03-1.28
Occupation								
Professional	1.00		1.00		1.00		1.00	
Manager	0.83	0.56-1.24	0.85	0.57-1.27	0.84	0.72-0.97	0.87	0.74-1.03
Official worker	0.91	0.75-1.10	0.88	0.72-1.06	0.69	0.61-0.78	0.83	0.73-0.95
Sales, services	2.33	1.95-2.79	1.65	1.36-2.00	1.17	1.07-1.28	1.30	1.17-1.45
Skilled worker, technicians	1.53	1.24-1.88	1.05	0.85-1.30	0.90	0.82-0.99	0.95	0.86-1.06
Semi-skilled worker	1.10	0.87-1.37	0.76	0.59-0.96	0.51	0.45-0.58	0.69	0.60-0.81
Unskilled worker	1.50	1.24-1.83	0.98	0.77-1.23	0.64	0.56-0.72	0.88	0.76-1.01
Agricultural, forestry and Armed forces worker	0.61	0.17-2.15	0.54	0.15-1.92	0.37	0.24-0.56	0.59	0.38-0.92
	2.00	0.91-4.40	1.14	0.48-2.71	0.93	0.59-1.45	1.11	0.68-1.82
Work type								
Regular	1.00		1.00		1.00		1.00	
Temporary or part-time	1.25	1.14-1.37	1.11	0.99-1.24	0.87	0.81-0.93	0.97	0.89-1.05
Shift work								
No	1.00		1.00		1.00		1.00	
Yes	2.62	2.36-2.90	2.21	1.98-2.47	1.77	1.66-1.89	1.81	1.68-1.94
Work hour								
~39	1.00		1.00		1.00		1.00	
40~59	0.99	0.88-1.12	1.10	0.93-1.29	0.76	0.72-0.81	0.84	0.78-0.90
60~	1.91	1.66-2.21	1.64	1.37-1.97	1.12	0.96-1.30	1.36	1.15-1.62

고찰

본 연구에서 근로환경 부당 대우의 각각의 실태를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여 알 수 있었다. 차별은 유럽보다 한국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의 차별 문제가 한국이 더 클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희롱은 한국보다 유럽에서 그 비율 자체는 높았으나, 여성에 비한 남성의 비차비가 한국에서 더 낮아 그 피해가 주로 여성에게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유럽이 한국의 2배에 이르는 정도의 비율 차이를 보였으나 비정규직의 폭력에 대한 위험도는 한국에서 높았으며(Crude OR) 교대근무자와 장시간 근무자에서는 유의하게 한국에서 폭력에 대한 보정된 비차비가 더 컸다.

이러한 유럽과 한국의 차별, 성희롱, 폭력에 대한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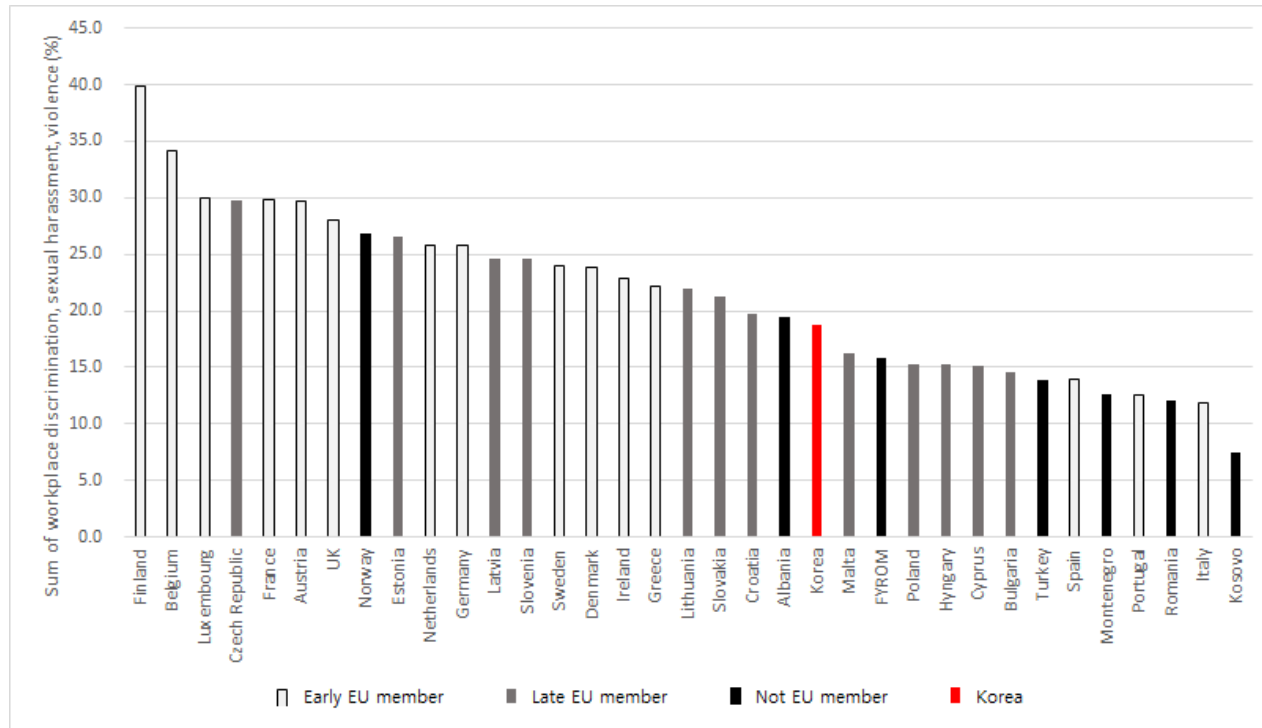
첫째, 힘을 남용하는 말이나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 낮은 역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반대로 어떤 범위의 문화에서는 견딜만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Escartin의 연구에서는 중앙아메리카와 서유럽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workplace bullying 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서유럽에 비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요소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16]. 실제로 6차 유럽 자료에서 국가별 분포를 보았을 때 폭력은 네덜란드 30%, 프랑스 25.1%, 덴마크 24.3% 의 순서로 나타났고, 성희롱은 네덜란드 4.5%, 스웨덴 3.9%, 핀란드 3.7% 의 순서였다. 4차 한국 자료에서는 폭력이 7.0%, 성희롱은 1.1%라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별, 성희롱, 폭력의 경험율을 모두 더하여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세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로 모두 유럽연합 초기 가입국이고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부당 대우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 높은 보고를 보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Table 17). 이렇듯 유럽 국가들간 일치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과 사회적 분위기, 근로 문화의 차이에서 부당 대우에 대한 더 낮은 역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종교적 상황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코소보는 국민의 90%가 이슬람교인 국가로 6차 유럽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5차 유럽 조사의 34개 국가중에서 가장 부당 대우의 비율이 낮았는데, 이슬람 국가의 남녀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잘 알려져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figure 4). 또한 이 순위를 매긴 결과에서 상위권은 주로 유럽 연합 초기가입국이 차지하였고, 하위권은 유럽 연합 후기가입국이나 미가입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오랜 관습으로 굳어져, 정부측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처벌 등으로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생각되며[17], 나아가 각국의 문화적 인식 및 용인 가능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Table 17. Percentage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of 6th EWCS by country and 4th KWCS

Country	2015 Europe (Korea:2014)			
	Dis%(yes)	Sex%(yes)	Vio%(yes)	Total
Austria	12.7	2.6	19.6	34.8
Belgium	9.9	2.0	19.8	31.7
Bulgaria	3.0	0.8	7.4	11.2
Croatia	3.8	1.5	10.9	16.2
Cyprus	8.9	1.6	11.9	22.4
Czech Republic	6.8	3.1	15.9	25.8
Denmark	5.3	3.4	24.3	33.1
Estonia	8.3	2.4	20.7	31.4
Finland	9.6	3.7	20.2	33.6
France	11.5	1.8	25.1	38.4
Germany	6.2	2.6	17.0	25.8
Greece	9.4	3.1	10.6	23.1
Hungary	4.8	0.7	8.0	13.6
Ireland	5.7	1.9	18.8	26.4
Italy	6.3	1.3	8.2	15.8
Latvia	6.9	2.5	18.1	27.5
Lithuania	5.7	1.4	15.1	22.2
Luxembourg	13.5	2.3	18.9	34.7
Malta	5.2	0.9	15.8	21.9
Netherlands	12.2	4.5	30.0	46.7
Poland	2.8	1.5	11.1	15.4
Portugal	4.2	1.1	4.7	10.1
Romania	7.4	1.2	12.3	21.0
Slovakia	7.5	2.8	19.1	29.4
Slovenia	8.0	2.2	17.4	27.6
Spain	4.4	1.2	9.9	15.5
Sweden	9.8	3.9	20.6	34.3
UK	6.9	2.5	23.3	32.7
Montenegro	3.6	0.6	10.5	14.7
FYROM	4.3	0.1	9.6	14.0
Serbia	5.5	1.6	11.0	18.1
Turkey	8.9	1.5	7.4	17.7
Norway	7.1	3.3	18.3	28.7
Switzerland	9.2	3.7	18.5	31.3
Albania	4.9	1.5	2.2	8.6
Korea	13.1	1.5	7.0	21.6

Figure 4. Bar graph of sum of workplac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of European country in 2010 (5th EWCS) and Korea in 2011 (3rd KWCS)



둘째, 타 문헌에서의 부당 대우 보고율을 참고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대한 경험율은 병원 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 58.4%, 여자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77%, 골프장 캐디 대상의 연구에서 91.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국가 자료인 근로환경조사의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7, 18, 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고 성희롱 경험을 묻는 문항이 각각 20, 12, 23개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성희롱에 대한 실태 및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바이어스의 개입 여지도 있어 그 경험율이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 전국 1,600 여개 사업장에서 조사한 성희롱 피해 경험에서는 여성에서 9.6%의 경험율을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20]. 이러한 국가 통계자료나 근로환경조사와 같은 공식적인 대규모 조사에서는 성희롱 여부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의 일부만이 드러나는 원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사적인 문제로 보는 통념, 문제의 드러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들 수 있다[21]. 또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입장이나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식하느냐는 개인 및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22].

셋째,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조사 항목의 내용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세부적인 항목을 비교해보면 5차 유럽과 6차 유럽은 공통된 7개의 차별 항목을 묻고 있는데 성, 연령,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동성애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럽이 다인종, 다국적, 다종교 등으로 구성된 큰 국가 연합 단위라는 것에 따른 항목 선정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3차 한국은 성, 연령,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5개 항목을 묻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배타적 인간관계를 야기하고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연고주의 문제가 반영되었다고 하겠다.[23] 이어 4차 한국 조사에서는 3차 조사에서 사용한 5개 질문에 유럽의 항목을 따와서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동성애의 5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항목을 묻고 있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질문에서 그 내용과 항목수가 달라 본 저자는 4차 한국과 6차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한 7개 항목인 성, 연령, 종교, 동성애, 인종, 국적, 장애에 대한 차별의 경험도 비교했는데(Table 6), 여기에서도 한국은 8.1%, 유럽은 7.2%로 인종, 국적 등이 포함되었음에도 다인종,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럽의 조사보다 한국의 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 차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차 한국 자료에서 10개 항목에 대한 차별 경험율은 13.1%였는데(Table 4) 유럽과의 7개 공통 항목에 대한 차별 경험율은 8.1%로 감소하여(Table 6) 이 5%의 차이는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차별의 학력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중졸의 학력에서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럽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Table 4, 5, 6),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에 기초하며 불평등을 구축하는 요인이 되는 학벌주의의 존재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24].

마지막으로, 낮거나 높게 측정된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실제로 차별 문제는 심각하고 성희롱과 폭력 문제는 유럽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세부 분포를 보았을 때 폭력의 경우 비정규직에서는 유

럽과 반대로 그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교대근무자에서 보정된 비차비가 유럽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괴롭힘의 방식이 성희롱 보다는 차별과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가장 최근 2개의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먼저 차별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며 유럽과 한국 모두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교대근무자에서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유럽의 5차 1.26배(8.0/6.3), 6차 1.23배(8.4/6.8)로 감소한 것과 반대로 한국은 3차 1.24배(14.9/12.0), 4차 1.44배(18.2/12.6)로 격차가 증가하여 교대근무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4). 이는 성, 연령의 공통 2개 문항만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의 5차 1.21배(5.2/4.3), 6차 1.17배(5.5/4.7)로 감소한 것과 반대로 한국은 3차 1.25배(7.4/5.9), 4차 1.79배(11.8/6.6)로 증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Table 5), 실제 이들에 대한 차별이 많아졌을 가능성과 부당 대우에 관한 인식율이 높아지고 역치가 낮아진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였다.

성희롱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며 유럽은 대체적으로 증가, 한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소득 최저 그룹과 중졸의 학력, 교대근무자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성희롱이 증가하였다(Table 9). 여성만 비교했을 때 유럽의 최고 소득 그룹에서 성희롱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나, 한국에서는 소득 최저 그룹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서비스직의 성희롱은 유럽에서는 증가했으나 한국에

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Table 10), 6차 유럽과 4차 한국의 여성 성희롱 비차비 비교시에는 판매-서비스직의 보정한 비차비가 한국 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른 요인을 모두 보정했을 때는 판매-서비스직의 위험도가 한국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3).

폭력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며 유럽과 한국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그 증가폭은 직업의 몇 가지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이 더 컸다. 특히 유럽과 비교하여 증가폭이 컸던 것은 소득 최저그룹,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교대근무자였다(Table 14).

이와 같이 유럽과 한국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부당 대우 중 차별이 현재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성희롱과 폭력도 그 비율 자체는 유럽보다 낮으나 소득 최저 그룹이나 교대근무자 등에 있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성만 따로 분석했을 때 사회적 약자인 소득 최저 그룹에서 빠르게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판매-서비스직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또한 이들 부당 대우와 연관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보정된 비차비가 유럽보다 높아 이들 취약 집단이 조명되었으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아직까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2014년까지 7년간의 차별시정제도의 이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시정

신청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을 꺼려한다고 하였다[25]. 또한 사용자 측에서 민간 경비를 고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에 대해 자본과 국가 권력이 하나의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 연구도 있었다[26]. 한편 교대근무 직종인 간호사나 경찰관에 대해서 폭력이나 부당 대우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간호사의 79.2%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95%에서 환자, 상사, 의사 등에게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였다[27, 28]. 또한 경찰의 75.7%, 교정공무원의 80% 이상에서 언어 폭력을 경험하며 신체적 폭력의 경험율도 14.0~56.4% 를 보여 이것이 심리적 탈진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29]. 이처럼 교대근무자의 부당 대우 피해는 그 정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대근무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외부인이나 동료로부터 부당 대우에 노출되면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유럽 연합 가입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성희롱은 한국과 유럽 연합 초기가입국은 감소하였고 유럽연합 후기가입국과 미가입국에서는 증가하였다. 차별과 폭력은 한국과 유럽 모든 국가 그룹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한국은 차별에서 유럽연합 초기가입국보다는 가파른 증가세였고 폭력에서 유럽 모든 국가 그룹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좀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유럽의 4차 조사(2005), 한국의 2차 조사(2010), 한국의 1차 조사(2006)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국가 그룹의 부당 대우 경험율 추세를 살펴보았다(Figure

5~7). 그 결과, 차별은 유럽연합 초기가입국은 시간이 지나며 완만한 증가를 보였고 유럽연합 후기가입국과 미가입국, 한국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전체 추세선에서 한국의 증가폭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희룡은 유럽연합 초기가입국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후기가입국과 미가입국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한국은 증가했다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역시 전체 추세선에서 한국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폭력은 유럽연합 초기가입국, 후기가입국,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 미가입국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차별, 성희룡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Figure 5.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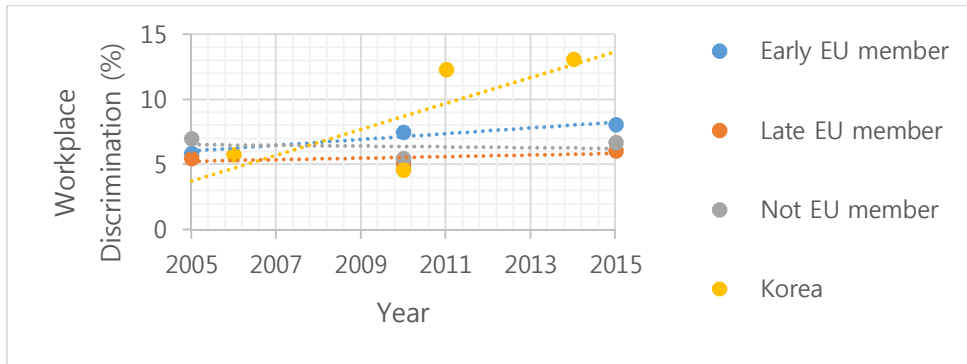


Figure 6.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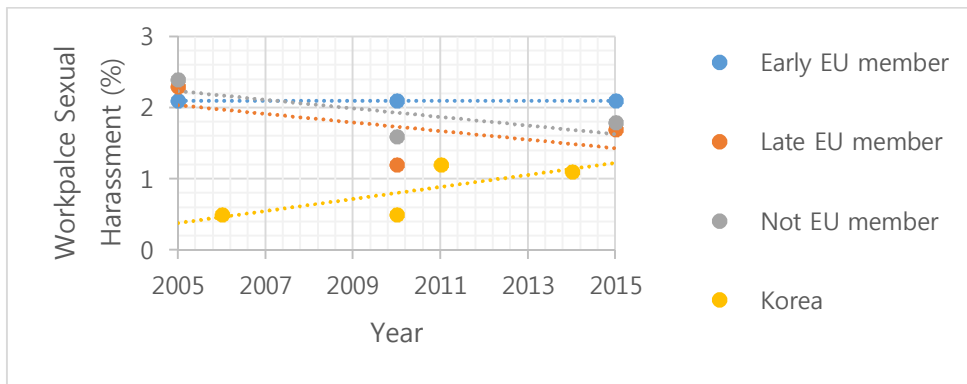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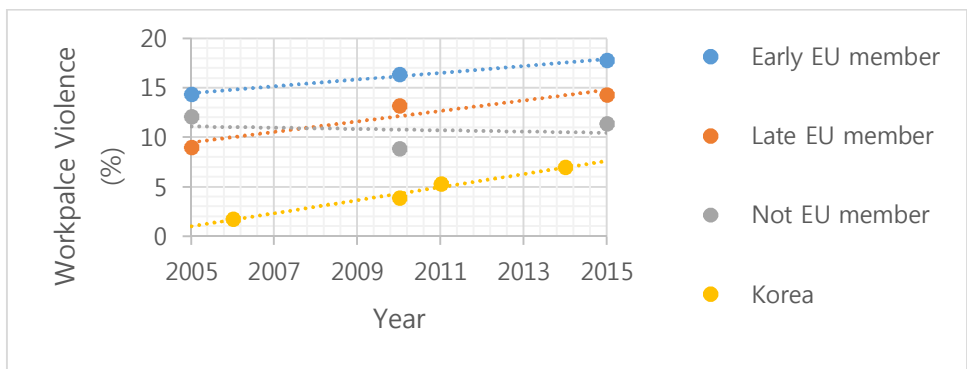


Figure 7. The temporal trend of workplace violence in Europe and Korea from 2005 to 2015



이처럼 유럽연합 가입 시기별로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근로 환경에서의 차별, 성희롱, 폭력에 있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부당 대우의 이러한 상승세와 타 조사에서 발표되는 성희롱의 높은 경험율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성희롱은 과소측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높은 역치와 이에 따른 인식 부재 및 이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낮은 응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 대우를 측정하는 항목의 개수 및 내용이 유럽과 한국이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차별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고용형태, 학연, 지연에 따른 차별이 포함되었고 유럽에서는 인종, 국적, 종교, 동성애, 장애에 따른 차별이 조사되었다. 이에 항목의 개수도 3차 한국이 5개, 4차 한국이 10개, 5차와 6차 유럽이 각각 7개로 달랐다. 폭력에 관하여는 3차, 4차 한국, 5차 유럽이 모두 항목의 개수와 내용이 같은데 6차 유럽에서는 '굴욕적 행동 또는 위협(humiliating behavior or threat)'의 항목이 '굴욕적 행동'과 '위협'의 두 가지로 각각 구분되어 5개로 측정 항목이 늘어났다. 이러한 점에서 4차 한국의 차별과 6차 유럽의 폭력은 과측정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연관 요인을 같이 다루어 단순 비율 비교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차별의 경우 모든 조사에서 공통으로 포함한 2가지 항목만을 비교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둘째, 조사 년도가 3차 한국은 2011년, 5차 유럽은 2010년이었고 4차 한국은 2014년, 6차 유럽은 2015년으로 한국과 유럽의 직접 비교 및 각 자료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 시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셋째, 단면연구를 이용한 비교분석 자료로 비정규직, 교대 근무, 저소득 등이 부당 대우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관 요인을 같이 다룸으로써 취약 집단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넷째, 유럽의 다국가, 다민족, 다인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나의 자료로 해석하여 한국과 비교한 점에서 종교적 상황, 경제성장도, 주력 산업 및 사회 분위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처럼 한계점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부당 대우의 각 항목에 대해서 한국을 유럽과 직접 비교하고 연관 요인의 차이를 밝혀낸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또한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고 유럽연합 가입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국과 비교한 점에서 통합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한 점과 유럽과는 다른 한국의 분포 및 취약 계층에서 나타나는 부당 대우의 형태 등을 밝혀낸 것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 근로 환경에 있어서 부당 대우의 실태 조사에 더 다양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고 직장 교육과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선 정책을 만들고 이들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본 연구가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최상복: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 2004.
2. Kim G, Min B, Jung J, Paek D, Cho S-i: **The association of relational and organizational job stress factors with sleep disorder: analysis of the 3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1)**.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 **28**:46.
3. JILPT: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JILPT report* 2013, **12**.
4. Einarsen S, Raknes BrI, Matthiesen SB: **Bullying and harassment at work and their relationships to work environment quality: An exploratory study**.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4, **4**:381-401.
5. Kim S-S, Williams DR: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PloS one* 2012, **7**:e30501.
6. Lee H-E, Kim H-R, Park JS: **Work-related risk factors for workplace violence among Korean employe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014, **56**:12-20.
7. Yeong-Soon K, Chang-Wook K, Sue-Kyung S: **The Recognition,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about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of Caddies**. *Korean Journal of Golf Studies* 2014, **8**:51-60.
8. 이상현, 이경재, 김주자, 문현제, 이희성, 김광휘: **임금 근로자에서 차별 경험과 우울 및 불안장애와의 연관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405-405.
9. Hoel H, Sparks K, Cooper CL: **The cost of violence/stress at work and the benefits of a violence/stress-free working environmen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1:81.
10. Labor UDo: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2011**.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3.
11. Einarsen S, Mikkelsen EG: **Individual effects of exposure to bullying at work**. *Bullying and emotional abuse in the workpla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research and practice* 2003, **6**.
12. McEwen BS: **Protective and damaging effects of stress mediators**.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98, **338**:171-179.
13. Choi ES, Jung H-SK, Su-Hyun1 Park H: **The Influence of Workplace Violence on Work-related Anxiety and Depression Experience among Korean Employees.** *J Korean Acad Nurs* 2010, **40**:650-661.
 14. 오재일, 백도명, 박정선, 조성일: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과 손상 사이의 연관성 분석.**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260-261.
 15. Yoo M, Lee S, Kang M-Y: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mod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mistreatment and health problems: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EU countri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015, **57**:427-437.
 16. Escartin J, Zapf D, Arrieta C, Rodriguez-Carballeira A: **Workers'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A cross-cultural study.** 2011.
 17. Oh E-K: **Women of Islams and Multiculturalism.** In *Book Women of Islams and Multiculturalism* (Editor ed.^eds.), vol. 9. pp. 1-29. City: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2009:1-29.
 18. Park G-J, Jung H-M, Kim M-K: **Sexual Harassmen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 **8**:95-107.
 19. Lee YA: **An Empirical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Campus Lif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012, **20**:31-54.
 20.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3_034500016&conn_path=I2). *국가통계포털* 2015.
 21. CHOI YJ: **Toward the Conceptu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s 'Occupational Injuries'.** *Women's Studies Review* 2004, **21**:79-116.
 22. Hong K-O: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Habitual Practice of Sex Discrimination at the Work.**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005, **14**:27-44.
 23. Jong Han Y: **Negative Effect of Nepotism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an Exploration of An Alternative.**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994, **1**:83-94.
 24. Lee KM: **A study on "Hakbeolism" and class conflict in Korea society:**

- Toward a theorization of "Hakbeo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07, **17**:63-85.
25. Cho, Sang K: **The Issues & the Forecast thereto on 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DONG-A LAW REVIEW* 2014:1-31.
 26. Choi SW, Kim YH: **A Case Study on the Violence Caused by the Private Security in Labor Dispute.** *Korean Academy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007, **16**:106-141.
 27. Yoon K-A, Jin K-N: **Client Violence and Job Stress in the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7, **27**:285-298.
 28. Jung HJ, Young-Sook L: **Nurses's Experiences of Verbal Abuse in Hospital Setting.**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1, **6**:118-126.
 29. Sin S-W: **The Comparison of the Violence Experience, Psychological Burnout, Occupational Satisfaction between Police and Correctional Officer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2009, **6**:105-124.

Abstract

Workplace Mistreatment in Korea and Europe – Comparison Study of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Kim Gyu Ree

Department of Industri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Workplace mistreatment is the main cause of social conflicts and reducing workers' quality of life. It is thu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this problem. However, no study has been conducted that offers a detailed comparison of Korean data with foreign dat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problematic situation in Korea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o classify workplace mistreatment into three categories: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temporal changes, and associated factors by comparing Korea with Europe.

Methods

This study covered only wage workers in the 3rd and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carried out in 2011 and 2014, respectively, and in the 5th and 6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carried out in 2010 and 2015, respectively. The items related to workplace mistreatment were classified into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Other selected variables were sex, income, education, occupation, employment type, shift work, and working hours per week. For each survey, the experience rate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under the three kinds of workplace mistreatment were confirmed. The European countries were divided according to when they joined the EU, and the temporal changes of each mistreatment were compared with Korean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the associated factors with workplace mistreatment in the 4th KWCS and 6th EWCS.

Results

The experience rate of discrimination was higher in Korea than in Europe, with 2,334 people (6.7%) among the 5th EWCS participants, 2,534 (7.2%) in the 6th EWCS, 4,519 (12.3%) in the 3rd KWCS, and 4,718 (13.1%) in the 4th KWCS. The Odds Ratios of discrimination in temporary, part-time, and shift workers were also higher in Korea than in Europe (temporary, part-time : OR 1.37, 95% CI 1.26–1.50 in Korea, OR 1.29, 95% CI 1.16–1.43 in Europe, shiftwork : OR 1.54, 95% CI 1.40–1.70 in Korea, OR 1.30, 95% CI 1.17–1.44 in Europ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ere high in Europe, but Korean female sales and services workers had a higher risk of sexual harassment than those in Europe (OR 2.43, 95% CI 1.51–3.91 in Korea, OR 2.27, 95% CI 1.69–3.05 in Europe), and the adjusted odds ratios of violence were higher in Korea in temporary, part-time, and shift workers (temporary, part-time : OR 1.11, 95% CI 0.99–1.24 in Korea, OR 0.97, 95% CI 0.89–1.05 in Europe, shiftwork : OR 2.21, 95% CI 1.98–2.47 in Korea, 1.81, 95% CI 1.68–1.94 in Europe).

Conclusion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severity of discrimination and the groups most vulnerable to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Europe. We hope that our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s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s through activities such as monitoring the

vulnerable groups and for further investigative research.

Keywords : Workplace Mistreatment,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Violence, Korea, Europe,
Working Conditions Survey

Student Number : 2014-23354